

CHAPTER 3. 수시 합격 결정짓는 마지막 하나

2) 합격 보장하는 것은 잘 만들어진 학생부!

학생부위주 전형의 비중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학생부위 주 전형에 지원해 합격하려면 결국 내 학생부가 남달라야 합니다. △수상 경력 △교과학습발달사항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활동 △봉사 활동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 내 여러 항목에서 교사가 일관되게 나의 장점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야 하지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선 학생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결국 학생부가 좋아야 학생부를 근간으로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습니다. 대학들이 진행하는 면접은 모두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면접을 잘치르기 위해서도 학생부는 반드시 잘 가꾸어 놓아야 하지요.

결국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잘 만들어진 학생부 하나가 나의 대학 합격을 보장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진로, 대학의 인재상을 중심으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최근 입시에서 학생부위주 전형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는 그야말로 학생 평가의 기본 근거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꼼꼼하고 체계적인 학생부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관리는 교과뿐 아니라 비교과 영역 전반이 포함됩니다.

내신 성적처럼 수치화해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학생의 능력 중 수치화되지 않는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거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실적이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무조건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입시만을 목적으로

로 어떠한 방향성 없이 단순한 경험만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꿈을 추구하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비교과 영역까지 활동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결국 비교과 활동은 어떤 계기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동했고, 그러한 활동이 본인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중요한 평가의 준거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알맞은 잠재력과 소질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학생부에 기입될 활동 내용들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구난방으로 여러 활동을 하기보다는 분명한 목표를 중심으로 활동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학과로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가 세워졌다면 독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등에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려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된 계획과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그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계발하려고 일관되게 노력해 온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게 마련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중요하게 평가하거나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평가 기준은 모집요강에서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거나 '지원 자격' 혹은 '인재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재상은 학교 전체 및 전형별, 학과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책자 등을 미리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학업의지 및 전공적합성 △창의성 △인성 △학업성취도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5가지 평가기준을 근거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명칭 그대로 종합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결이나 봉사활동, 임원 경력 이나 동아리활동 등 학교생활기록부 여러 요소들을 위의 평가기준을 고려해 성실히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교내 활동 들을 하는 것이 좋은 학생부 관리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아니라면 활동의 개수만 채우려는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활동들의 개수를 늘려 학생부 내용을 많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들을 연결하여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다른 활동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본 뒤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른 활동을 계획하고 연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학생부를 어떻게 작성할지 고민하기보다는 학생부 내용의 원천이 되는 활동들을 계획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생부의 근거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활동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스스로가 어떻게 학교 활동을 이어나 가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개수와 시간, 양이 많은 학생부를 만들기도 다는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우수성을 질적으로 높이는 학생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로와 전혀 무관한 동아리서도

전공적합성 만들 수 있어!

일반적으로 고1이 학교생활을 탐색하는 기간이라면, 2학년은 본격적인 준비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되도록 일관성 있는 활동들로 2학년 때부터 비교과 활동을 채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진로를 중심으로 활동을 설계하고 계획하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곡해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노파심이 듭니다. 많은 고교생이 동아리를 선택할 때, 진로와 직결된 동아리를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경영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경제토론동아리에 가입하고, 방송 PD가 꿈인 학생은 방송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아리활동을 꼭 진로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진로와 다소 무관해 보이는 동아리에서도 얼마든지 희망 진로와 연계되는 지점을 찾아 전공적합성이나 탐구 능력 등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 전문 가를 꿈꾸는 인문계열 학생이더라도 과학 동아리에 가입해 전공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과학의 발전이 사회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깊게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동아리 선택의 폭은 상당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동아리 중 어떤 기준으로 동아리를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동아리를 선택할 시 많은 학생이 '이 동아리가 진로 선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학업 능력은 얼마나 키워줄 수 있는지'를 따지느라 '흥미'를 뒷전으로 합니다. 하지만 흥미는 동아리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고요? 흥미는 차별화된 '스토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생물학도를 희망하는 한 학생이 진로적합성을 드러내기 위해 생물 실험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짜여진 동아리 커리큘럼대로 각종 실험을 하며 동아리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매우 '흥미 로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동아리에 가입할 때부터 진로적합성을 드러내고, 생물 관련 교과 지식을 향상시킬 '목적'을 갖고 가입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학업의 연장선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재미있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해야 할 동아리활동을 '학업의 연장'으로 여기게 되

면 활동이 거듭될수록 지루하고 따분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갖고 동아리에 가입하려 하지 말고 흥미에 맞는 동아리를 찾아가 입한다면 이런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생물학과를 희망하면서 영화 보는 것에 남다른 취미가 있는 A 학생을 예로 들어봅시다. A는 자신의 흥미를 쫓아 '영화감상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동아리에서 '페이스오프'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람의 얼굴을 통째로 이식하는 장면을 목격한 A 학생. 본래 생물학과를 희망하던 A는 영화를 보면서 '얼굴을 이식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에 따라 얼굴 이식이 면역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진로적합성을 드러내고, 교과역량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생물실험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을 지라도 생물 실험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들보다 더 차별화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 내역은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하는 남다른 '스토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흥미를 갖고 동아리 활동에 몰입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는 것이고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매우 차별화된 소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duWho
좋은 학생부,
선생님과 좋은 관계에서 비롯돼
Education Consulting

자신의 학생부를 기록해 줄 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될 즈음, 담임교사 및 각 교과 담당 교사, 동아리 담당 교사 등과 안면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첫 인상을 어떻게 남기느냐는 매우 중요하지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교에 있는 모든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물론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한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여러 명인데다가, 문·이과나 선택 과목에 따라 3년간 아예 만나보지 못하는 교사도 있을 겁니다.

학생부 기록을 위해 교사들과 친해지기로 마음먹은 학생이라면 먼저 '1년간 나의 학생부를 기재해 줄 교사가 누구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부의 어떤 항목을 어떤 교사가 입력해주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당 교사와 좋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의 진로희망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각 학년 담임교사만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자율활동과 봉사활동은 담임교사가 기재할 수 있고, 동아리활동은 동아리 지도교사가 기재해야 합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각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와 담임교사가 모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사가 학생부의 어떤 항목을 기재하는지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교사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 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 모든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교사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억에 남는 학생이 되는 힘듭니다.

교사들이 수많은 학생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들이 먼저 교사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해 평소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거나 학교생활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서 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수학을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수학 담당 교사에게 찾아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교내 과학 경시대회에 대해 궁금하다면 과학 교사를 찾아가 질문하고, 어떤 동아리에 가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동아리 담당 교사나 담임교사를 찾아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학생을 '열정적인 학생'으로 기억하게 되고,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기재할 때 참고합니다.

교사에게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느끼는 사소한 고충이라도 교사에게 털어 놓으면 교사는 해당 학생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평소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학생 특성에 맞는 대입 전형을 찾아 학생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으므로 자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와 어느 정도 친분을 쌓았다면, 교사를 찾아가 자신이 한 교내 활동이나 자신의 진로, 관심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동아리활동에 대해 세세히 기록하고 싶다면 자신의 동아리 활동 내역이나 동아리활동을 하며 느낀 점 등을 정리해 동아리 담당 교사에게 말하는 식이지요.

이때 빈손으로 교사를 찾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비교과 활동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남기고 이를 교사와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과 활동에 대한 자신의 노력, 활동 내용, 느낀 점 등을 노트에 구체적으로 적은 뒤 이를 교사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집중하라!

학생부에 채워야 할 항목은 무려 10개에 달합니다.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막막한 고교생이 많은데, 수많은 항목 중에 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이 그것이지요. 이들 세 가지 항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완하느냐는 학생부의 '질'을 좌우합니다.

내신 성적과 연관된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은 특히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도 연관되는 이 항목은 대학에서 학생의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학교생활 성실도 등을 엿보는데 참고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지요.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내신 교과목의 성적과 함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기록됩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등 학생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담깁니다.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만을 뽑는 것이 아니다보니 특정 교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상세히 드러나 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1학년 때 영어에서 5등급을 받은 학생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영어 담당 교사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후 해당 학생이 2학년 때 영어에서 2등급을 받았다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보여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 고 기록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활용할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게끔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을 교사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상경력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적지 않은 대학 들이 수상경력을 통해 학업 성취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대학들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합한 내용과 수상경력을 비교해서 검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과목의 내신 성적은 좋지 않지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사회과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을 경우, 수상경력을 확인해보는 식입니다. 이때 수상경력에 '교내 사회문화 경시대회 금상'과 '인문사회과학퀴즈대회 금상'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은 다소 떨어지지만 사회과학적 역량이 뛰어나다' 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지요.

수상경력 항목에 기록되는 상은 학교별로 사전 등록이 된 교내상만 입력할 수 있으므로 학기 초에 학교에서 어떤 교내대회가 열리는지 일정을 꼼꼼하게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화학과 생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열리는 '화학경시대회' '생물경시대회' 'R&E 연구성과발표대회' 등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회에서 수상하지 못했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담임교사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내대회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와 토론한 내용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고스란히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이를 통해 내가 성장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3학년 수시모집 때 자기소개서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권으로 끝장내는 대입전략(월 알아야 대학가지!)

학생부 전체 항목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가 가장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록될 수 있는 항목은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항목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상황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총 네 가지 영역에 대한 활동이 기록됩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 점은 '진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로를 확실히 정하고 그것이 봉사, 동아리, 진로활동들로 연결되면 짜임새 있는 학생부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활동들은 전공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1학년 때 생명 과학동아리에 가입해 다양한 실험과 토론을 해보거나 이후 초등학교에 방문해 초등생에게 생명과학 실험을 알려주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축제가 열려서 생명과학 실험을 하는 부스를 운영한다면 자율활동에도 기록이 됩니다.



EduWho
Education Consulting